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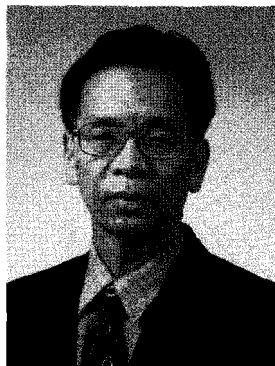
HIV는 새로이 나온 병원
제이면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HIV는 무서운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 바이러스는 아주 교활
하기도 하다. 감염되어도 수십년
간 모를 수 있으며 사람이 아무리
치료제를 개발하여도 교묘하게 변
신하여 저항한다. 혈액이나 체액

복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는 의심스
럽다. 바이러스에도 “super
spreader”가 있는 가하면 감염력
이 미미한 종류도 있고 감수성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다. 사고
후에는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
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사고가 나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배우자의 결에도 갈 수
가 없다.

직업적인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자

신 영 오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AIDS의 안전지침은 대부분
평범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어
려운 것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
는 것이다.

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
해야 한다. HIV는 치명적이며, 백
신과 치료제가 없고 경우에 따라
서는 전파가 용이할 수 있다. 감
염자와 환자는 증가되고 있다. 일
단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그 후
속 조치가 아주 골치 아프다. 절
린 부위를 짜서 피를 흘려내고,
살을 베고 씻는 등 온갖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당기간 동안 현기
증이 나고 부작용이 심한 AZT를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하여서는
HIV를 재료로서 실험하는 사람,
AIDS환자를 돌보는 분들은 직업
적으로 HIV에 걸리지 않도록 특
별히 주의해야 겠다. 일반적인
채혈, 주사, 수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혈액 및 체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HIV, AIDS교육을 담당하는 사
람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나 타인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AIDS의 안전지침에 대하여 알아
야 겠다.

AIDS의 안전지침은 대부분 평
범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어려운
것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다. 관련되는 준수사항을 요령껏,
적당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환자를 돌보는 작업장에서 환자
의 혈액, 체액 및 조직은 항상 감
염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전지침을 준수
하는 universal precautions(전반
적인 주의,UP)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

UP개념이 적용되는 채액으로는 혈액, 정액, 질분비액, 양수, 뇌척수액, 심막액, 복막수, 흉수, 활액, 모유, 침등이며, 변, 비분비물, 가래, 땀, 눈물, 노, 토한 액 등은 혈액이 보이지 않은 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액을 취급할 때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갑, 카운, 마스크 및 안면보호등 적합한 차단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주사침이나 뾰족한 도구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주사기의 뚜껑을 닫는 등 뾰족한 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은 두 손을 사용하여 다시 닫지 않도록 한다.

사람의 운동신경은 불완전하여 두 손을 사용하는 경우 주사침으로 손을 찌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후에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하며 의류나 폐기물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HIV의 오염가능성이 있는 의복이나 기구는 염소농도 0.1% chloride-sodium hypochlorite 용액에 넣어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AIDS환자와 성적관계가 아닌 공동생활에서도 HIV가 피부로 옮겨진 예가 근래에 보고되고 있어 HIV 감염자 혹은 AIDS환자와의 동거자는 피부를 통한 감염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HIV감염자가 결핵환자인 경우 결핵균은 환자가 재채기, 기

침, 말이나 노래할 때에 비말을 통하여 옮겨질수 있다. HIV비감염자가 감염성결핵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에 HIV뿐만이 아니라 결핵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채혈을 담당하거나 혈액을 사용하는 실험실 오원들은 손과 눈, 코, 입의 점막에 혈액과 채액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부위의 오염은 검체를 쏟거나 튀었을 때 그리고 aerosol이 발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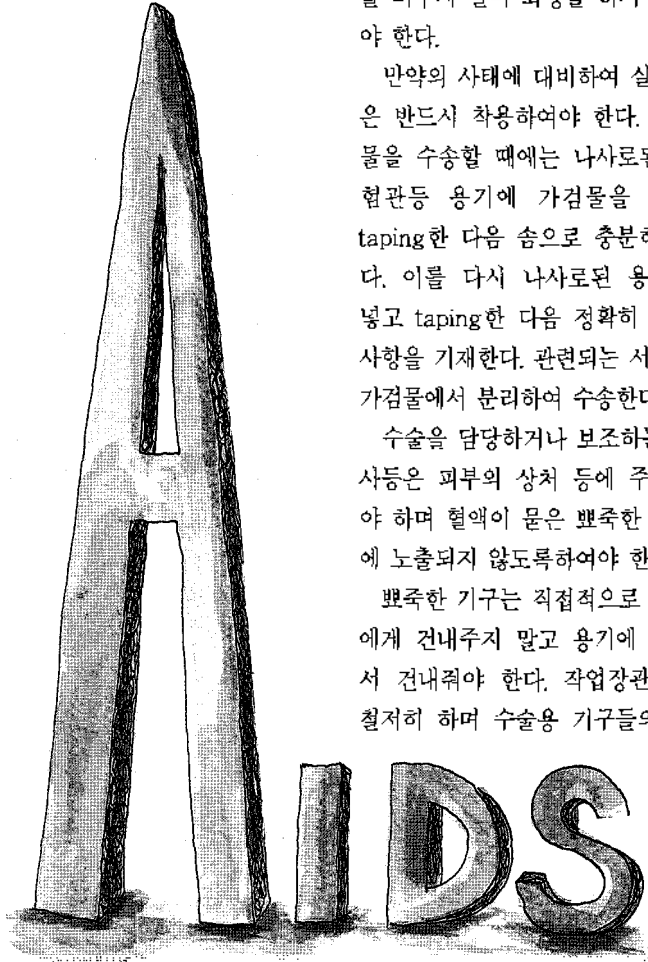
였을 때에 생길 수 있다. 장갑은 오염이 되었을 때마다 버리고 새것을 착용해야 한다. 장갑을 낀 손으로 눈, 코, 피부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긴 채로 작업장 주변을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을 가능하면 피하고 사용 후에 견고한 용기에 모은 후에 폐기한다. 기술적인 조작과정에서 튀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실험실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작업장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며 화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반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실험복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가검물을 수송할 때에는 나사로된 시험관등 용기에 가검물을 넣고 taping한 다음 솜으로 충분히 싸다. 이를 다시 나사로된 용기에 넣고 taping한 다음 정확히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관련되는 서류는 가검물에서 분리하여 수송한다.

수술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의사들은 피부의 상처 등에 주의해야 하며 혈액이 묻은 뾰족한 기구에 노출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뾰족한 기구는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건내주지 말고 용기에 담아서 건내줘야 한다. 작업장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술용 기구들의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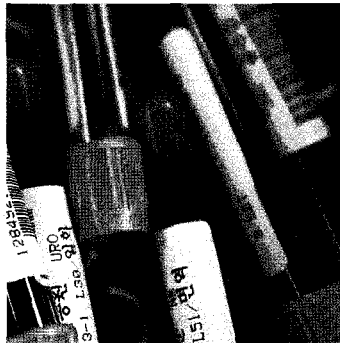


료를 덜 위험한 것으로 대치된 것이 바람직하다. 치과에서도 준수 사항은 비슷하며 혈액이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한 모든기구 및 의류는 염소농도 500-800ppm의 sodium chlorite액에 넣어두면 충분하다. 이러한 준수 사항은 응급실에서도 적용되며 특히 경험이 적은 학생, 훈련생등에서 보다 흔하게 사고가 발생한다.

이상의 준수사항은 지극히 간단하고 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하며 감염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1994년 말 까지 확실하게 전파가 보고된 예는 42건이었으며 91건이 직업상 전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증명된 42건중에서 임상간호사가 13례, 임상병리사가 15례, 내과 의사 6례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를 보인 반면에, 치과 의사를 포함한 치과근무자, 외과 의사 등에서 한 건의 감염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감염되지는 않았으나 오염된 혈액에 찔리거나 혈액을 다루는 중에 찔린 사건은 수천 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시 HIV의 전파가능성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게는 직업적인 전파가 적은 반면에 HIV감염에 소홀히 대응하거나 이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지 못한 경우에 불행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보시저널 M 발췌

우리나라에서 작업중에 HIV에 감염된 예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자로 부터 채혈하던 중이거나 채혈한 혈액을 취

급하던 중에 오염된 주사침에 찔린 사건은 수건이 있었다.

HIV에 오염된 주사침의 뚜껑을 두 손으로 닫으려는 과정에서 입지에 찔린 사건이 있었다. 무리하게 오염된 혈액을 병에서 뽑으려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주사침에 허벅지가 찔린 사건도 있었다 한다. 이들이 사건 후 감염되지 않도록 많은 고생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질서가 잘 안 지켜진다고 한다. 실험실내에서나 환자 보호장에서 안전준수가 안 지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서 오염혈액을 장갑을 끼지 않은 채로 한 손으로 실험자에게 옮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오염된 혈액이 넣어진 시험관을 행정부부에 넣어 수송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보호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채혈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조치가 계속될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HIV가 아니라도 B형간염등 다른 혈액관련 병원체가 옮겨질수 있다. 사고에 의한 HIV감염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위사람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

이제 HIV를 비롯한 혈액관련 병원체의 감염자도 증가하며 관련 업무도 증가추세에 있다. 실험실이나 환자보호등 업무중에 HIV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하고 타인을 교육해야겠다. A